

“예외규정 많아 적용에 혼선”

새 맞춤법에 대한 출판사 편집자의 의견

辭書類 전면 개편 불가피

張基永

(주) 동아출판사 편집전무

새 ‘외래어 표기법’이 시행된 데 이어, 금년 1월 문교부 고시 제88-1호와 제88-2호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새로이 확정·공표되었다.

변하는 것은 강산만이 아니라, 언어에도 생명이 있어 신생·성장·사멸하며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생각할 때,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실로 반세기가 지난 다음의 이번 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물론 이번에 확정·공표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문제점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번의 맞춤법과 표준어 개정에 따른 辭典 전면 개편의 불가피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출판 편집인으로서의 소견을 간단히 피력할까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辭書類 및 總類 출판현황을 살펴보면, 1986년 통계로 총 발행종수가 4,694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발행부수는 3,258부이고, 총 시장규모는 어림잡아 1,2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새 맞춤법과 표준어에 따른 모든 사전 개편 작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라 생각된다.

사전 개편작업에 소요되는 몇 년의 기간과 그동안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제작비 또한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 개편 작업에 종사할 전문편집인의 부족이다.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누구나 국어사전 개편 작업을 할 수 있고,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하여 모두가 영어사전 개편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 개편은 전문성을 지닌 편집인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그런 전문성을 지닌 편집인은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나마 그 수가 많지 않고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든 사전의 폐기에 따른 출판사들의 재정적 손실과 자금의 압박이다.

이상의 세가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긴 하겠으나, 크게는 이상의 세가지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급속한 사회변천과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수용을 위해 어차피 사전은 수시로 개편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재수요의 창출 등 좋은 점도 기대된다.

아 물론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번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확정·고시는 국어현실의 발전을 위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었다.

‘현실화’는 또다른 문제 야기

李徹之

종로서적출판(주) 편집이사

글을 쓰거나 글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의 하나가 바로 ‘한글 바로 쓰기’이다.

‘쉬운 우리 글’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 있는 출판 편집자로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어려운 우리 글’임을 고백한다.

대개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의 편집자로 그의 몫을 하기에는 ‘우리 말’을 다시 익혀야 되는 실정이다. 이미 오랫동안 배웠고 삶의 한 조각과 같은 ‘우리 말’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한글 바로 쓰기’(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이다.

출판사 나름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원칙(약속)을 정하여 그간의 배운 ‘버릇’을 고치도록 훈련받아야 했다.

우리의 ‘말’이 그동안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특히 외래어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혼란한 글자와 말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간의 우리의 어문정책이나 교육이 제대로 꼴을 갖추지 못한 잘못 또한 크다 하겠다. 심하게는 순수한 우리 말을 접하고자 일부 글을 쓰는 분들은 해방전 작가들의 글을 읽고 참고하는 일도 있다.

정책적인 배려가 소홀한 듯한 우리 어문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노력했나를 반성해 본다.

과거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었지만 ‘한글맞춤법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다. 윤곽을 보니 그 개정내용이 내보이는 뜻은 우리의 글을 ‘소리 중심’ 맞춤법으로 본 것 같다. 어문정책에서 ‘현실화’라는 용어를 내세운 것도 탓이러니와 ‘언어의 현실화’ ‘규정의 현실화’가 과연 우리의 언어를 대하는 자세로서 타당한가? 묻고 싶다.

오늘의 ‘현실화’는 내일 또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글학자들의 의견에도 나왔지만 우리 글의 맞춤법은 쓰기보다 읽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오히려 그렇게 보면 지금의 맞춤법이 읽기에 더 유리하다. 또한 우리의 글이 ‘뜻 중심의 한글 맞춤법’으로서는 현재가 낫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익혀 왔고 이미 굳어진 우리 말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고친다는 것은 재고할 일이다. 우리의 언어를 고집스레 지키는 그 또한 우리역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띄어쓰기 규정의 현실화’의 예시에서도 보듯이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하되, 붙여 씀을 허용” 따위는 띄어도 그만 띄지 않아도 그만 아닌가. 원칙적으로 띄어쓰기의 규정은 ‘띄어 쓰기’위한 것이다. **姓과 이름을 띄어 쓰던 것을 이번 고치는 내용을 보니 붙여 쓰고 “성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띄라” 했는데 그 또한 혼란스럽다.** 글 사용에 있어서 ‘예외’는 무척 지키기 어렵고 혼란을 가져온다. 글을 쓰는 이나 글을 다듬는 이가 확고하게 사용할 지침이어야지 애매해서는 한 권의 책에서 사람따라 띄었다, 붙였다 무질서한 ‘띄어 쓰기’가 될 것이다.

가능한 고치는 폭이 좁아야 하고, 지금의 맞춤법의 중심 뼈대는 다치지 말고 정리와 보충을 하는 데 그치면 좋겠다.

또다른 ‘한글 바로 쓰기’ 참고지침용으로 남아서는 안되겠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

인간을 그리워하는 詩人의 초상

朴東奎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 시인



머칠전 늦은 밤 천양희詩人의 「사람 그리운 都市」를 펼쳐들었다.

내 어머니, 고독이여, 내 삶을 다시 말해주세요.

- 밀로즈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희망을 기르기에 충분하듯이 나는 오랜 날들을 나의 종말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었다.

그것은, 사람의 절망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쁨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각이었다.

그 자각은 어떤 삶보다도 강했다. 그 감각 속에서만 나는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 삶이 고통과 자각을 통한 극복이라면, 이제 나는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조명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한된 나의 이야기와 나의 이름에서 해방되기를 나의 시여, 원한전대 침묵이 그대 속으로 되돌아 가지기를.

나는 그대를 위해 지나간 날들보다 더 고통스런 생애를 바칠 것이다.

첫시집 이후의 작품들을 모아 4년만에 두번째 시집을 묶었다.

협한 세상, 어눌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궤적일 것이다.

단숨에 읽어 내려간 「自序」를 인용하였다. 절망의 끝에 서서 반대편 하늘에 솟아난 기쁨의 깃발을 본다는 것은 살아온 연륜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개안이라 할 수 있다.

천양희시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개안은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하는 나에게 또다른 의미체로 다가서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자각이 어둠의 현실적 장벽을 뚫고 밝아오는 저편의 새벽에 대한 예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뼈 속까지 으스스한기드는 날이면

따뜻한 부의 속을 찾아가는 낙엽이나 되었으면

헛바퀴 도는 내 심장의 얼음장 깨고 세상 모두 덮히는 온천수나 되었으면

<... 되었으면>

낙엽이 되어 아궁이에 재로 남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방안에 남길 수 있게 되는 일은 천양희시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아변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절망의 벽을 더듬고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며, 일상의 생활에서 차디찬 심장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틀을 깨고 풍족한 다사로움으로 첨병거리며 몸을 데울 수 있는 온천수로의 변화도 밝아오는 새벽에 대한 예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휴머니즘의 정신이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버리는 세상 한낱 동전도 못 버리는 사람들 사이 시멘트 벽 날로 높다

<오늘처럼>

「自序」는 천양희시인의 문패였다. 시집을 넘길 때마다 천 시인이 겪고 있는 삶의 궤적은 마치 시루에서 서로 머리를 비비고 살아가는 콩나물처럼 가슴을 열어놓고 여러디 여러디 몸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공존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시멘트벽을 떠돌아다니며 인간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초상은 이미 「自序」에 그대로 드러났기에 천시인의 시는 지적 판별력보다 감성적 동질성을 앞서 가지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명한 서문, 그것은 명문일 수 있으나 웃고름을 풀듯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진실한 자아고백의 글은 언제나 속의 모든 것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감동이 있는 것이다.

‘원칙’ 모호해 用例集 있어야

김택춘

계몽사 편집1부 차장

새해 들어 문교부는 그동안 학술원과 국어연구소가 작업해 온 것을 토대로 새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을 고시하였다.

무릇 언어란 사상을 담는 그릇이요 두르는 옷이니만치, 그 사상의 변화에 걸맞게 언어도 털을 갈고 틀을 새로 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근본 취지를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일선 편집 실무를 맡고 있는 나 같은 ‘쟁이’ 들에게 이번 개혁안이 그동안 부닥쳐 온 모순과 고충을 얼마나 반영하고 해결해 주었느냐는 점에서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현실음을 중시하여 단순모음 쪽으로, 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이는 쪽으로 갔다든지, 오히려 말맛이 더 나는 방언을 복수표준어로 집어 넣었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칭찬을 아무리 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 보조용언에서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는 단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우리 편집장이나 일선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그렇잖아도 보조용언의 원칙이 없어 책을 펴내는 곳마다 기준이 다른 터에, 붙여도 좋고 떼어도 좋다-이것은 자율이 아니다. 입안자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모음조화 현상에서 ‘가깝다’의 활용인 ‘가까와’를 ‘가까워’로 현실음을 존중했는데, ‘곱다’를 ‘고와’로 종전대로 두면서까지 예외 조항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외는 적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표준어도 그렇다. 현실음을 중시한다면서 8항에서와 같이 어원 의식이 강하다고 하여 ‘부주’ ‘사둔’ ‘삼춘’을 짓히고 ‘부조’ ‘사둔’ ‘삼춘’을 표준어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18항에서 복수 표준어의 길을 터놓고 굳이 17항에서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인다

고 하여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린다”는 것도 그리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복수 표준어를 좀더 넓혀서 곱고 살가운 방언을 표준어에 집어 넣는 데 힘썼더라면 우리말이 훨씬 풍요로워졌을 것이다.

그 밖에 ‘남비’를 ‘냄비’로, ‘신출나기’를 ‘신출내기’로 ‘ㅣ’ 역행동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미 굳어진 ‘아지랭이’를 ‘아지랑이’로 환원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ㅣ’ 역행동화 현상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이미 굳어진 것까지 환원시키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계몽사(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는 기왕에도 우리말에 대한 원칙이 애매하여 책을 펴내는 데 많은 혼란이 따랐다. 그 표준이 되어 줄 교과서마저 원칙이 없어 부득불 거기에 실린 단어들을 취합하여 만든 두툼한 노트를 놓고 교정을 볼 때마다 그것을 펼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 불편은 새 개정안을 대하고도 여전히 가실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나름으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다만 한 가지, 「외래어 표기 용례집」처럼 관계 기관에서 하루라도 빨리 용례집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로 단어뿐 아니라 문장의 열개까지 더럽혀진 우리말의 글다듬기 원칙도 제정하여 용례집에 덧붙여 주면 우리말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고마움을 느끼겠다.